

# 순천만국가정원 무인궤도차 사고 조사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오가는 무인궤도 차량 '스카이큐브'의 추돌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께 순천만 문화관 지역에서 순천만 정원 역으로 달리던 관람 차량이 순천만 정원 역을 2km 앞둔 지점에서 시속 14km 속도로 앞서가다 정차한 관람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람차 4대에 나뉘어 타고 있던 A(59)씨와 B(7)군 등 2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경찰, 순천에코트랜스 관계사 3명 소환 순천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감사의뢰

앞서 두 차량은 같은 날 12시 33분께 순천시 순천만 문화관역 방면 300m 지점에서 시속 13km 속도로 운행 중 추돌하기도 했다.

스카이큐브는 관계팀장을 비롯해 관계사 5명이 근무 중이다. 사고 당일 관계 팀장은 휴가 중이었고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13일과 14일 추돌 사고 시간 근무했던 스카이큐브 운

영업체(순천에코트랜스 관계사 A씨 등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근무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회사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14일 담당 공무원을 운영체로 보내 현장조사를 한 뒤 도

로교통안전공단에 임시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시설로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의 중대 과실이 드러날 경우 30일 운영 정지나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계열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화관역 편도4.62km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100억대 줄도박 전문 도박단 검거

100억대 남녀혼성 아도사끼(줄도박) 전문 도박단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동지역 아산 6곳에서 100억대의 아도사끼 도박단을 벌인 혐의(도박장소개설)로 총책 A(53)씨 등 3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B(58·여)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A씨 등과 함께 도박장 개설에 가담한 10명과 B씨 등과 함께 도박을 한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5월13일까지 안동지역 6곳의 아산 정상이나 중턱에 천막을 쳐놓고 도박꾼 50~70여명을 모아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을 이용해 한판에 100~300만원(평균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단의 일일평균 판돈은 최소 2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총 56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참고(총책), 매개(패를 돌리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밍을 보는 역할), 전주(돈을 빌려주는 역할) 등 역할을 분담 후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아산을 매일 옮겨 다니면서 도박장을 연 것으로 밝혀졌다.

## 양주 돼지농장 정화조서 80대 숨진 채 발견

경기 양주시 은현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80대 노인이 정화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A(83)씨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정화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화조는 3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자 농장에서 일하다 실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북지관 직원 사칭 노인 속여 금품 훔친 40대

북지관 직원을 사칭해 노인의 집을 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최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A(73·여)씨의 집에 들어가 금목걸이 등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 달 12일 북지관 직원을 사칭하며 A씨의 집을 방문한 뒤 외출 시간을 알아내고 열쇠를 훔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 후배들 절도 강요 후 부모 협박 10대 2명 검거

동네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금품을 훔치도록 강요하고, 이를 미끼로 부모들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 낸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4일 A(19)군을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B(16)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4월 부산 서구 일대 편의점 PC방 등 지서 동네 후배 C(14)군 등 7명을 협박해 자신들의 손지갑, 팔찌 등을 훔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후배 7명의 부모에게 "아들이 지갑, 팔찌 등 400만원 상당을 훔쳐갔다. 변제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200만원 상당을 뜯어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PC방과 편의점 CCTV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이 지갑을 두고 가는 장면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뉴스

지역공감 마케팅, 정통매출	전화 062)224-5800
<b>湖南新聞</b>	팩스 062)222-5548

## 지진대피훈련 내일 오후 2시 전국 실시

공공기관·학교·유치원 등 참여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18 제16회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국민 참여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전국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일부 민간시설이 참여한다.

시·군·구별로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민간시설을 1개소 이상 중점훈련대상으로 선정해 주민들의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대피 이후에는 지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훈련 상황을 안내하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TV(KBS 1TV) 방송은 오후 1시 50분부터, 라디오 방송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2시20분까지 진행된다. 교통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훈련에 대한 간단한 안내 이후 2시30분부터 1분간 민방위경보사이렌(재난위험경보)으로 훈련 시작을 알린다.

행안부는 경주지진(2016년 9월12일) 이후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지진 대피훈련을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는 국민들의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5월과 9월 두 차례 전국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시민들과 감부겸 행안부 장관은 서울 해상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훈련에 참여한다.

뉴스



밀 만져보는 학생들 14일 오후 서울서청 시민청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주최로 열린 우리밀 특별전시회 행사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밀밭 포토존에서 밀을 만져보고 있다.

## '국제결혼 이혼' 6년 전 1만1500건→작년 7100건 급감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성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지난해 6년 동안 38% 줄어드는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년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제결혼 가정 이혼 건은 연간 1만 1500건에 달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만1000건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이 형성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외국인과의 결혼하려 하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현지 국가 문화,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도입 이후 국제결혼 가정 이혼 건은 ▲2012년 1만800건 ▲2013년 1만500건 ▲2014년 9800건 ▲2015년 8200건 ▲2016년 7700건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1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결혼 가정 이혼 건이 지난

2011년 1만15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7100건을 기록한 것으로, 약 38%가량 감소한 것이다.

결혼 이민을 위한 사증 신청 역시 지난 2011년 1만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내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평했다.

법무부는 향후 국민에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개발·유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경치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멜로루 시티 장성군